

대구천 골목 분포의 특징과 발생 맥락

송언근* · 이보영**

The Origin of the Regional Difference in Distribution of Daegucheon Alleys

Un Gun Song* · Bo Young Lee**

요약 : 대구천 골목의 분포 특징과 발생 맥락을 밝히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80년 전인 1943년, 대구 시내에는 대구천이 흘렀다. 당시 대구천은 3~5m 폭을 가진 작은 개울이었다. 이들은 도시화 과정에 유로의 방향, 형태, 길이, 폭 등을 유지한 채 골목으로 변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대구천 분류 골목 중에서 대표적인 곳은 건들바위 버스정류장 서쪽의 이천로에서 대구초등 건너편의 봉산문화 2길까지이다. 반면 원도심의 대구천 분류 골목은 대부분 사라졌다. 대구천 분류 골목에서 대표적인 곳은 건들바위 맞은편 고운선한복 북쪽의 대봉로 43길에서 대봉치안센터 사이의 명륜로까지이다. 대구천 골목 분포의 지역적 차이는 도시 개발과 관련 깊다. 동성로 1길과 대봉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일본인 거주지여서 계획적 도시 개발로 가로 구조는 직교형으로 발달했고, 넓은 부지의 공공시설들이 입지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대구천 분류는 일찍 사라졌다. 반면 동성로 1길과 대봉로의 서쪽은 한국인 거주지이어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대구천은 분류와 분류 모두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해방 이후 도시화로 대구천은 골목으로 변했다. 현대에 와서도 대봉로 서쪽은 상대적으로 재개발되지 않아 이곳의 대구천 분류와 분류 골목은 현재까지 남아 있다.

주요어 : 근대 골목, 대구천, 대구천 골목

Abstract : This study is on the origin of regional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alleys on the vestige of Daegucheon. The Daegucheon was still running through the city of Daegu in the year 1943. It was then a relatively small stream of width 3-5m. Later urbanization of the city had transformed the river into alleys maintaining similar directions, forms, lengths, and widths. One of the still remaining mainstream-turned-into-streets is the alley from the Geondbawi bus stop(west-side) to the Bongsanmunhwa-2gil across from east-side of Daegu Elementary School. Most of the mainstream alleys of the inner city, however, have since disappeared. Among the tributary alleys, still remaining one is the alley extending from the clothes shop Gounsunhanbok across from the Geondbawi, through the Daebongro-43gil northbound, to a neighborhood of the Daebong Police Station at Myungryunro and Daebongro. The regional distributive difference of Daegucheon alleys was a result of the city development. In the era of Japanese rule, the east side of Dongseongro-1gil — Daebongro Line was re-developed as an area for Japanese and for large governmental buildings, while its west side was left undeveloped for Koreans. Rectangular re-development of the east side, therefore, resulted in the disappearance of stream alleys there, whereas in undeveloped west side, mainstream and tributary alleys had been left intact longer. After the end of Japanese rule, the remaining parts of Daegucheon were also turned into alleys according to the city development. Under-developed west side of the Daebongro has still some of the mainstream and tributary alleys.

Key Words : Modern alleys, Daegucheon, Daegucheon alleys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song@dnue.ac.kr)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lee@knu.ac.kr)

I. 서론

2001년 ‘거리문화시민연대’라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시민문화운동으로 시작한 대구 중구 일대의 골목, 시장, 근대건축물, 문화거리, 생활사, 문화유적 등에 대한 조사는 도심공동화로 장소성을 상실한 채 쇠락해가던 중구의 이면 도로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원도심¹⁾ 골목 답사는 2007년 대구시 중구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원도심 골목 답사는 ‘대구근대골목투어’라는 공식적인 문화유산관광 상품으로 전환되어 대중적으로 홍보되고,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박충환, 2016).

대구근대골목투어의 핵심인 원도심은 1736년에 축성되어 1907년에 파괴된 대구읍성과 관련 깊다. 오늘날 대구 시가지의 출발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대구 원도심의 토대인 대구읍성은 경상도를 관할하는 감영이 있어, 대구뿐만 아니라 경상도 정치, 행정, 군사, 경제의 중심지였다. 때문에 대구 읍성에는 그것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특히 읍성 남문과 서문 밖이 그러하였다.

한편 인간의 삶은 하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하천을 따라 농경지가 발달하고, 하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며, 하천을 따라 길이 생긴다. 대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하천은 대구 읍성 남문과 서문을 따라 흘렀던 대구천이다. 물을 따라 길이 생기듯이 읍성과 대구천 사이에 동래에서 한양으로 가는 영남대교가 있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시장이 생기듯이 서문 밖 대구천변에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인 서문시장이 있었다. 이런 특징으로 읍성에 연한 대구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대구민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던 대구천은 일제강점기 도시화 과정에 큰 변화를 겪는다. 여름철 홍수로 반복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천 유로는 인위적으로 변경되고, 복개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던 대구천은 점차 골목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대구천이 변한 골목에는 1736년 대구 읍성 축성과 1907년 읍성 파괴, 1778년 대구 판관 이서에 의한 신천 제방 축조, 일제강점기 도시화 등 전근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적, 지리적 사건들과 그 속에 살았던 대구민들

의 삶이 퇴적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천 골목은 대구의 전근대와 근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리함에도 대구근대골목투어에 대구천 골목은 없다. 대구천 골목 관련 연구 역시 전무하다.

본 연구는 ‘대구천 골목의 장소적 의미와 답사 코스 개발’이라는 일련의 연구 중 첫 단계로서 대구천이 변한 골목을 찾아 그것의 분포 특징과 발생 맥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지역은 대구천이 재분류하는 건물바위에서 북서쪽으로 계산성당, 북쪽으로 봉산육거리까지이다. 이 범위를 연구지역으로 한 것은 첫째, 신천과 관련된 대표적 역사적 사건인 정조 2년(1778) 대구 판관 이서에 의한 이공제(신천 제방) 건설과 관련된 대구천 분류가 건물바위에서 시작되고, 둘째, 원도심에 인접하여 근대로(路)의 여행의 골목답사와 연계가 용이하며, 셋째, 원도심과 그 주변 지역에서 골목화 된 대구천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는 곳이 이들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도심에 인접해 있고, 근대로의 여행 지역이지만 하천명이 바뀌고, 그것이 복개된 상태에서 골목으로 변한 곳은 제외하였다.²⁾

연구 방법은 지도 분석과 현지 조사이다. 본 연구의 핵심 자료는 지형도와 지적도이다. 이 중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고, 각각의 용도를 전, 답, 도로, 구(溝), 천(川), 제방, 유지(溜池) 등 다양한 토지이용들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런 특징으로 지적도는 지형도와 달리 지번, 지목, 경계가 명확하여 필지별로 토지의 성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본 연구는 세 시기로 분석한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로서, 이 시기는 1943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를 분석 시기로 한 것은 일본에 의한 마지막 도시 계획인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확정된 1937년에서 1943년 사이, 즉 일제 강점기 말기의 대구천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한 분석 자료는 1943년 1/600 지적도와 1937년은 1/10,000 지형도가 중심이며, 보조적으로는 1911년, 1929년, 1933년 1/600 지적도와 1918년 1/10,000 지형도를 활용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1943년 대구천 흐름 특징을 살폈다. 두 번째는 해방에서 1차 도시 계획 사이로서, 이 시기는 1965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65년은 해방 이후 도시 계획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박찬석·이병곤, 1985). 때문에 이때는 1943년 이후 인위적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대구천의 변화를 살피는 데 적합하다. 핵심 분석 자료는

1965년 1/3,000 지적도이며, 1954년 항공사진과 1957년 1/25,000 지형도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 시기는 현재(2022년)로서 여기서는 다음(Daum)의 카카오맵을 중심으로 1943년 대구천과 1965년 대구천 골목의 현재 위치를 찾고, 그것의 분포 특징을 조사하였다. 지도 분석과 더불어 또 다른 주요 연구 방법은 현지 조사이다. 여기서는 지도에서 찾은 대구천 유로 흔적인 골목들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것의 위치, 폭, 길이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였다.

II. 1943년 대구천 유로와 1965년 대구천 골목³⁾의 관계

본 장에서는 1943년 대구천 유로의 위치, 길이, 방향, 형태, 규모의 특징을 찾고, 이를 1965년 대구천 골목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대구천 유로와 대구천 골목의 관계를 살펴본다.

1. 1943년 대구천 유로

그림 1은 1943년 연구 지역의 대구천 유로를 나타낸 것이다.⁴⁾ 그림에서 보듯이 대구천은 건들바위(A) 부근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건들바위에서 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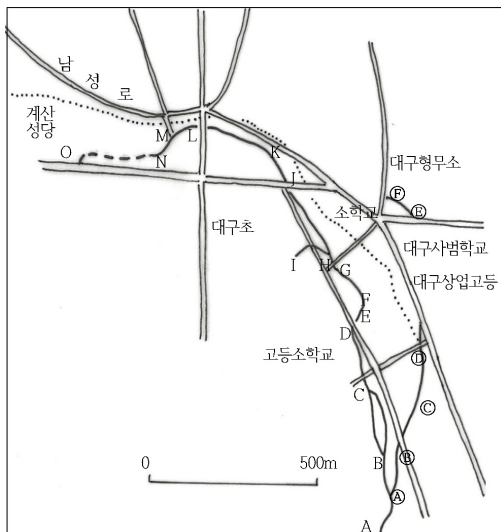


그림 1. 1943년 대구천 유로

* 검은 실선은 사실상 대구천 유로, 점선 영남대로, 파선 골목화 된 대구천

하고, 다른 하나는 건들바위에서 북동류한다. 전자는 대구천 본류이고, 후자는 대구천 분류이다. 본류와 분류의 흐름 특징을 통해 이들 유로의 위치, 길이, 방향, 형태, 규모 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구천 본류 유로

그림 1을 보면 1943년의 대구천은 건들바위(A)에서 20~50m 정도 동쪽에 있었다. 이 위치에서 260m 정도 북류하다가 B지점에서 동서로 나누어졌다. 동쪽 유로는 길이가 210m 정도였고, 폭은 1.2~1.8m였다. 서쪽 유로는 길이가 200m 정도이었고, 폭은 3~4m였다. 동서로 나누어져 흐르던 본류는 C 지점에서 동쪽 유로가 서쪽 유로에 합쳐졌다. 합류 지점에서 본류는 그림 1의 대구공립고등소학교 동쪽 20여 m 지역을 따라 북류하였다. C에서 170m 정도 북류하던 본류는 고등소학교 동쪽 30m 거리의 D 지점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돌린다.

D에서 동쪽으로 50m 정도 흐르던 본류는 E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40m 정도 흐르다가 F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G 부근에서부터는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북북서류한다. 이 같은 흐름으로 D에서 G 사이의 본류는 동쪽으로 크게 휘어진 형태를 띤다. G 부근에는 본류에 유입하는 작은 지류가 있다. 이것은 I 부근에서 흘러내린 작은 하천으로 I에서 150여 m 남동류하다가 H에서 본류에 합류한다. G에서 대구천 본류는 350m 정도 떨어진 J까지 북북서류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D에서 J 사이의 대구천 본류 폭은 대부분 3~4m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본류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은 1906년 대구공립보통소학교로 개교한 현재의 대구초등학교와 소학교로 표시되어 있는 현 경북대사범대부설초등학교인 대구봉산정 심상소학교이다. G와 J 사이의 본류는 두 학교 중간으로 흐른다.

읍성에 가까운 J는 대구초등 북쪽 경계에서 북동쪽으로 약 90m 거리에 있다. 이곳의 유로 형태는 동쪽으로 뾰족한 썩기모양이다. J에서 북북서쪽으로 60m 정도 흐르던 본류는 K 부근에서 방향을 북서서쪽으로 바꾼다. K에서 북서서류하던 본류는 L에서 서류하여 M까지 이어진다. 이 구간에서 유로 폭은 대개 3~4m이다. M에서 본류는 남서쪽의 N으로 방향을 돌린다. N 서쪽에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대구천 본류는 골목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원도심인 그림 1의 L에서 O 사이의 본류는 영남대로에 인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구 읍성의 잔재인 남

성로 남쪽에서 흘렀기 때문에 당시의 본류 유로 위치 추적이 용이하다. 위치 판단 기준은 현재도 남아 있는 영남대로와 1907년 파괴된 대구읍성의 남쪽 성벽을 따라 만들어진 남성로이다.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1943년 당시 대구천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은 남성로 남쪽 45m 지점이며 L과 M 사이의 본류는 영남대로 남쪽 15~21m 거리에서 흘렀다. 또한 M에서 남서쪽으로 유로가 휘어지는 N은 남성로 남쪽 90m 부근에 위치한다. 과거에는 본류가 흘렀지만 1943년에는 골목으로 남아 있는 O의 위치는 남성로 남쪽 약 190m 지점이다.

2) 대구천 본류 유로

그림 1에서 보듯이 건들바위(A)에서 북류하던 대구천은 건들바위 북쪽 160m 정도의 ㉠에서 분류한다. 분류 하천은 ㉠에서 150m 정도 북북동류하다가 ㉡에서 방향을 북동쪽으로 흐른다. 유로 방향이 바뀌는 ㉢의 위치를 대구천 본류와 관계에서 찾으면, 그것은 본류가 두 갈래 나누어지는 지점(B)에서 북동쪽으로 70여 m 지점에 있다. 이곳에서 약 100m 정도 북동류하던 본류는 ㉣에서 유로를 북북동으로 바꾸어 180m 정도 떨어진 ㉤ 부근까지 흐른다. ㉤ 부근에서 방향을 북서쪽으로 돌려 35m 정도 흐르던 본류는 다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른다. 이 부근에서 본류는 영남대로와 교차한다. ㉥의 위치를 본류와의 관계에서 보면, 그곳은 고등소학교 동쪽 190m 지점이다.

㉤에서 북동쪽으로 90m 정도 흘러가던 본류는 1923년에 설립된 대구상업학교와 대구사범학교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류가 다시 나타나는 곳은 대구사범학교 북쪽 경계에서 도로를 건너 있는 ㉦ 지역이다. 이 지역의 위치는 대구형무소⁶⁾ 남쪽 70m 부근이다. 이곳에서 본류는 ㉦쪽으로 60여 m 북서류하다가 ㉧에서 북북서쪽으로 돌려 30m 정도 흐르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구천 본류 폭은 대부분 3~5m 정도이다.

2. 1965년 대구천 골목 특징과 1943년 대구천 유로의 관계

1965년 1/3,000 지적도에는 1943년의 대구천이 없다. 반면 1943년 대구천 본류 및 본류 유로가 있었던 곳에 골목이 있다. 본 절에서는 1965년 지적도에서 1943년 대구천 유로와 유사한 위치의 골목들을 찾아 그것의 위치,

형태, 방향, 규모 등의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1943년 대구천 유로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1965년 대구천 골목과 1943년 대구천 유로의 관계를 살펴본다.

1) 1965년 대구천 본류 골목 특징과 1943년 대구천 본류 유로의 관계

그림 2에서 보듯이 건들바위(a) 북쪽에는 1943년 대구천 본류가 흘렀던 곳에 골목이 있다. 이것은 건들바위에서 북쪽으로 260여 m 정도 이어지다가 b 부근에서 동서로 갈라진다. 동쪽 골목의 길이는 210m, 폭은 1.5m이고, 서쪽 골목의 길이는 약 200m, 폭은 3~4m이다. 두 골목은 200여 m 따로 이어지다가 c 부근에서 합쳐진다. 전술한 건들바위(a)에서 골목이 합쳐지는 지점(c)까지의 골목 위치, 길이, 방향, 폭 등은 전절에서 살펴 본 1943년 대구천 본류 유로의 특징과 아주 유사하다. 이는 1943년 대구천 본류가 유로 특징을 유지한 채 골목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류 유로가 골목으로 변한 특징은 c 지점 이북의 제일중학교(구고등소학교) 부근에서도 볼 수 있다. 제일중학교 동쪽 20여 m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160m 정도 이어지던 골목은 d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d는 제일중학교 동쪽 30m 위치에 있다. 이곳은 1943년 본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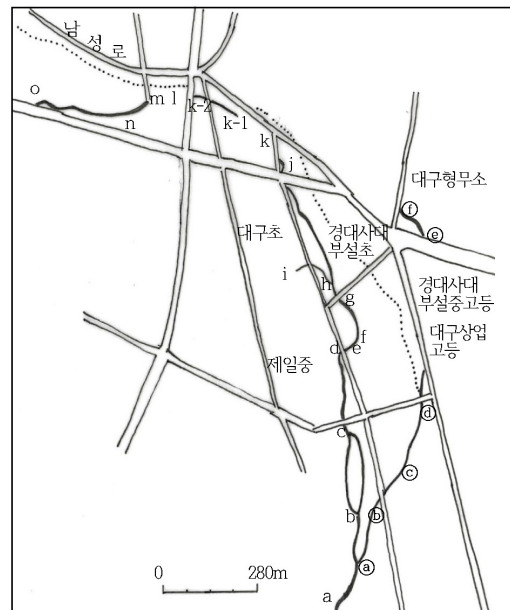


그림 2. 1965년 대구천 골목

* 진한 실선: 대구천 골목, 점선: 영남대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그림 1의 D와 같은 위치이다. d에서 동쪽으로 연속되던 골목은 50m 정도 나아가다가 e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어지다가 f에서 점진적으로 북서쪽으로 나아가간다. 그러다가 g에서부터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북북서쪽으로 이어진다. c에서 g 사이의 골목 폭은 3m 정도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1965년 이 구간(c~g) 골목의 위치, 방향, 형태, 규모는 1943년 대구천 본류 유로의 그것들과 거의 같다. 이는 이 지역 골목 역시 대구천 본류 유로가 변한 것임을 의미한다.

유로의 골목화는 이곳으로 유입하는 지류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1의 I에서 H로 흐르던 작고, 짧은 하천이 그림 2에 골목으로 나타난다. 즉 그림 1의 I와 같은 위치인 그림 2의 i에서 시작하는 좁은 골목은 40m 정도 동쪽으로 이어지다가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림 1의 H와 같은 위치인 h에서 본류 골목으로 연결된다. 이는 1943년 본류와 지류 유로가 1965년에는 골목으로 변화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대구초등 동쪽 40여 m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던 골목은 반월당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에 의해 끊겼다가 j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곳의 골목 형태는 1943년 본류가 동쪽으로 뾰족한 썩기모양의 형태를 가졌던 것과 같다. 그리고 대구초등 북쪽 가장자리 골목과 j간의 거리는 90m 정도인 것도 같은 특징이다. 이 구간에서도 본류 유로가 그것의 특징을 유지한 채 골목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초등 이북의 j에서 북북서쪽으로 60여 m 떨어진 k, 그리고 여기서 북서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k-1 사이에는 본류 골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류 골목은 k-1에서 서쪽으로 140m 쯤 떨어진 k-2 사이에 나타난다. 이곳의 골목 폭은 이 지역으로 흘렀던 본류의 유로 폭과 같은 3~4m 정도이다. k-2까지 이어지던 본류 골목은 도로 맞은편의 l에서 m 사이 90m 구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m과 o 사이에서 본류 골목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이보다 서쪽에는 본류 골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n에서 o 사이의 골목 폭은 3~4m이다.

2) 1965년 대구천 본류 골목 특징과 1943년 대구천 본류 유로의 관계

본류 골목이 시작하는 ㉔는 그림 1의 본류 하천이 분류하였던 ㉑와 같은 위치로, 이곳은 건들바위 북쪽 150m 지점이다. 이곳에서 북북동쪽으로 150m까지 이어지던

골목은 ㉑에서 100m 정도 북동쪽에 있는 ㉒까지 이어진다. ㉒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180m 정도 이어지던 골목은 ㉓부근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30m 정도 이어지다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북동쪽을 향해 60m 정도 이어진다.

그림 2의 분류 골목의 주요 위치들을 그림 1의 분류 하천의 관련 위치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에서 ㉑는 본류 골목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곳에서 북동쪽으로 70여 m 지점이다. 이로 볼 때, ㉑는 그림 1의 ㉑와 같은 위치이다. 그림 2에서 ㉓는 제일중학교 부근의 본류 골목에서 동쪽으로 190여 m 지점이다. 이와 같은 위치가 그림 1에서 ㉑이다. 이 같은 위치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첫째, ㉑ 지역에서 분류 골목이 북서쪽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북동으로 방향을 바뀌는 것, 둘째, ㉑ 지역의 분류 골목 형태가 썩기모양인 것, 셋째, ㉑ 지역에서 분류 골목이 영남대로와 교차하는 것, 넷째, ㉑에서 ㉒ 사이의 골목 폭 4~6m와 ㉒에서 ㉓ 사이의 골목 폭 3~4.5m는 1943년 이곳으로 흘렀던 본류 유로 폭과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1965년 이 지역의 분류 골목은 1943년 이곳으로 흘렀던 본류 하천이 유로 형태를 유지한 채 골목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㉑에서부터 분류 골목은 1943년 본류 하천과 같이 대구 상업고등학교와 구 대구사범학교 자리인 경북대사범대부설중고등학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류 골목이 다시 나타나는 곳은 경북대사범대부설중고등학교 북쪽 도로를 건너 ㉑ 지점이다. 이곳의 위치는 대구형무소 남쪽 약 80m 지점이다. 여기서 북서쪽으로 60m 정도 이어지던 본류 골목은 ㉑에서 북북서쪽으로 방향으로 30m 정도 연결되지만 그 이북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㉑에서 ㉑ 사이의 주요 지점의 위치와 골목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1943년 본류 하천과 거의 같다. 이로 볼 때는 이 지역의 1965년 골목 역시 1943년 본류 하천이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II. 현재 대구천 골목 분포 특징

본 장에서는 전장에서 살펴본 1943년 대구천과 1965년 대구천 골목의 위치를 연구 시점인 2022년 지도와 비교하여 현재(2022년)까지 남아 있는 대구천 골목의 분포 특징을 살펴본다.

1. 대구천 본류 골목

1) 건들바위와 제일중학교 사이

그림 3은 건들바위에서 제일중 사이에 남아 있는 대구천 본류 골목 분포도이다. 이 구간의 본류 골목 분포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건들바위에서 봉산오거리 사이에 남아 있는 본류 골목은 건들바위에서 약 250m 북쪽에 있는 건들바위 버스정류장에서 박물관고택(명륜로 128) 사이이다. 이 구간의 골목 길이는 200m 정도이고, 폭은 5m 정도이며, 방향은 북쪽으로 이어진다.

건들바위를 기준으로 버스정류장과 박물관고택의 위치와 두 지점간의 거리, 그리고 골목의 길이, 폭, 형태 등을 1943년 본류 하천 및 1965년 본류 골목과 비교하면 건들바위 버스정류장 위치는 그림 1과 2의 B와 b, 박물관고택 위치는 그림 1과 2의 C와 c와 같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골목 길이와 폭은 1943년 본류 하천과 1965년 본류 골목의 길이 및 폭과 거의 같다. 이로 볼 때, 현재 남아 있는 골목은 1943년 본류 하천이 변한 1965년 본류 골목의 동

쪽과 서쪽 중, 서쪽 골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65년에 존재했던 본류의 동쪽 골목은 이천로 건설로 사라졌다.

건들바위 버스정류장에서 박물관고택까지 이어지는 본류 골목은 남문시장 네거리에서 봉산 오거리로 이어지는 명륜로에 의해 끊겼다가 도로를 건너 다시 이어진다. 박물관고택 건너편 성우지업(명륜로 127)과 인우 인테리어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는 본류 골목은 153m 정도 북쪽으로 이어지다가 개미슈퍼(봉산문화길 27)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바꾼다. 이 구간의 본류 골목은 제일중학교 하식에서 동쪽으로 16~20m 사이에 위치한다. 골목 폭은 1.7~2m 정도로 상당히 좁다. 이 지역에는 그림 5에서 보듯이 폭 1.4m 정도의 오래된 콘크리트 하수구가 골목 전 구간에 걸쳐 나타난다. 하수구 방향은 1943년 이곳으로 흘렀던 본류 방향과 같다. 골목 좌우의 토지는 모두 주택지로 이용되며, 이곳의 주택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제일중 동편 골목의 주요 지점인 성우지업은 그림 1과 2의 C와 c의 맞은편이며, 개미슈퍼는 그림 1과 2의 D와 d 위치와 동일하다. 이 지역의 현재 골목 폭은 1943년 본류 하천과 1965년 본류 골목에 비해 좁아졌지만, 골목의 길이, 방향, 형태들은 1943년 본류 하천 및 1965년 본류 골목의 그것과 같다. 이로 볼 때 이 지역 역시 1943년 본류 하천이 변한 1965년 본류 골목이 폭만 좁아진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건들바위에서 제일중 사이 본류 골목

* 1: 건들바위 버스정류장, 2: 박물관고택, 3: 성우지업, 4: 개미슈퍼.



그림 4. 그림 3의 1-2 구간의 본류 골목



그림 5. 그림 3의 3-4 구간의 본류 골목

2) 봉산새마을금고와 딥커피로스트 사이

그림 6은 개미슈퍼 동쪽에 인접한 봉산새마을금고(봉산문화길 28)에서 딥커피로스트(봉산문화 2길 41) 사이의 본류 골목 분포도이다. 이 구간에서 본류 골목 분포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미슈퍼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본류 골목은 봉산동새마을금고 앞을 지나 동쪽으로 40m 정도 이어지다가 진성표구사(이천로 229-8)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여기서 40m 정도 북동쪽으로 나아가다 봉산문화거리 8-20번지 부근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곳에서 봉산문화1길을 따라 90m 정도 이어지든 본류 골목은 효녀방 분식(봉산문화 1길 10)에서부터는 북북서 쪽으로 연결된다. 효녀방 분식에서 봉산문화 2길을 따라 북북서로 이어지든 본류 골목은 딥커피로스트 부근에서 끝난다. 이 구간의 골목 길이는 200m 정도이고, 폭은 2~4m 정도이다. 골목 좌우는 대부분 주택이며, 집들은 대부분 오래 전에 지어진 것들이다.

개미슈퍼에서 효녀방 분식 사이의 주요 위치들을 1943년 본류 하천을 나타낸 그림 1과 1965년 본류 골목을 나타낸 그림 2와 비교하면 진성표구사는 그림 1과 2의 E 및 e, 봉산문화거리 8-20번지의 위치는 그림 1과 2의 F 및 f,

그리고 효녀방 분식은 그림 1과 2의 G 및 g와 같다. 봉산동새마을금고에서 효녀방 분식 사이의 골목 형태 역시, 과거 이 구간에서 동쪽으로 휘어지면서 곡류하였던 유로 형태와 같다. 이 뿐만 아니라 봉산동새마을금고에서 딥커피로스트까지의 구간에는 제일중학교 동편 골목에서 이어지는 폭 1m 전후의 오래된 콘크리트 하수구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7과 8의 골목 중앙에 있는 콘크리트 길이 하수구이다. 이 지역의 하수구 위치와 연결 방향은 1943년 본류 유로 방향과 거의 같다. 골목 폭 역시 1943년 본류 하천과 1965년 본류 골목 폭과 유사하다.

3) 원도심 주변: 신한은행과 계산오거리 사이

그림 9는 대구초등 북쪽에서 계산오거리 사이의 본류 골목을 나타낸 것이다. 이 구간의 본류 골목 분포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9에서 대구초등 북쪽의 달구벌대로 건너에 있는 현재의 신한은행 대구지점(달구벌대로 2125)은 그림 2의 j와 같은 위치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1965년에 있었던 본류 골목이 없다. 신한은행에서 북서쪽으로 50여 m 떨어진 루나미 뷰티 아카데미 본점(동성로 1길 46, 그림 2의 k와 같은 위치)까지, 그리고 이곳과 북서쪽으로 110m 정도 떨어진 자야(그림 2의 k-1과 같은 위치) 사이에는 1965년과 마찬가지로 본류 골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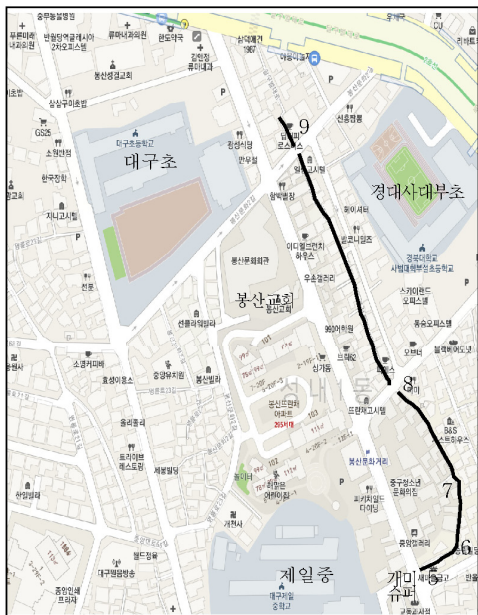


그림 6. 봉산새마을금고에서 딥커피로스트 사이 본류 골목

- * 5: 봉산새마을금고, 6: 진성표구사, 7: 8-20번지, 8: 효녀방분식, 9: 딥커피로스트.



그림 7. 그림 6의 7-8 구간의 본류 골목



그림 8. 그림 6의 8-9 사이 본류 골목

현재 본류 골목이 남아 있는 곳은 자야(달구벌대로 2113-19)에서 서쪽으로 120m 정도 떨어진 타르타르(중앙대로 378) 사이이다. 타르타르는 그림 2의 k-2와 같은 위치이다. 이 구간은 동성로 1길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야에서 뜨돈(달구벌대로 2109-30) 사이이고, 다른 하나는 뜨돈 건너에서 타르타르 사이이다. 전자 골목의 길이는 82m이지만 후자는 이보다 훨씬 짧은 28m이다. 골목 폭은 전자가 3m, 후자는 2.6m로서 1943년 본류 유로와 1965년 본류 골목 폭 3~4m에 비해 약간 좁아졌다. 특히 후자 구간의 골목 폭이 좁아졌다. 골목 좌우 토지는 자야에서 뜨돈 사이는 대부분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후자인 선물의 집에서 타르타르 사이는 건물 벽과 벽 사이이어서 뚜렷한 토지이용은 보이지 않는다. 타르타르 서쪽에서 연구 지역 서쪽 끝인 계산오거리 사이에는 본류 골목이 남아 있지 않다.

한편 1943년 본류 하천은 현재의 자야, 타르타르, YMCA(그림 1과 2의 L 및 1 위치), 이가국시(그림 1과 2의 M 및 m 위치) 부근으로 흘렀다. YMCA와 이가국시 부근(종로 10-1)에는 영남대로가 있었고, 본류는 영남대로 남쪽 15~21m 거리에서 흘렀다. 당시 본류와 영남대로의 관계를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43년 지적도에 있었던 영남대로는 현재도 있다. 사진 좌측



그림 9. 원도심 주변 본류 골목

* 10: 루나미, 11: 자야, 12: 뜨돈, 13: 타르타르, 14: 이가국시, 검은 실선: 대구천 골목, 점선: 영남대로.



그림 10. 그림 9의 11-12사이 본류 골목



그림 11. 그림 9의 12-13 사이 본류 골목



그림 12. 영남대로(좌측 길)와 대구YMCA(주차장 우측 건물)

의 길이 그것이다. 그곳에서 사진 우측의 주차장 부근에 있는 건물은 YMCA이다. 영남대로와 YMCA 사이의 거리는 20m 정도이다. 이들의 위치적 관계로 볼 때, 1943년 당시에는 현재의 YMCA 지역으로 3~4m 폭으로 분류가 흘렀고, 이후 어떤 시기에 골목으로 바뀌었다. 유로가 변한 골목은 일정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그곳에 YMCA 및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2. 대구천 분류 골목

그림 13은 건들바위에서 봉산육거리 사이에 남아 있는 오늘날 분류 골목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분류 골목의



그림 13. 분류 골목

- ①: 고운선한복, ②: 화신재가복지, ③: 대봉치안센터, ④: 의미심장내과.

분포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43년 건들바위 부근에서 대구천이 분류하였던 지점(그림 1의 ㉠)과 1965년 대구천 분류 골목의 시작 지점(그림 2의 ㉡)은 대봉화성파크드림오피스텔에 있는 파나소닉 서비스센터(명덕로 55길 25) 부근이다. 이 지역에 있었던 분류 골목은 대봉화성파크드림아파트 개발로 사라졌다. 남아 있는 분류 골목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대봉화성파크드림아파트 북쪽 정문 앞의 고운선한복(이천로 180) 건물 뒤쪽이다. 이곳은 그림 1과 2의 ㉢ 및 ㉣와 같은 위치이다. 분류 골목은 고운선한복에서 북동쪽으로 140m 정도 거리에 있는 화신재가복지센터(대봉로 43 안길 21)까지 이어진다(그림 14 참조). 이곳은 그림 1과 2의 ㉤ 및 ㉥와 같은 위치이다. 현재 이 골목은 '대봉로 43길과 이천로'라 불린다. 골목의 폭은 3~4m이다. 이 폭은 1943년 분류 유로의 폭 및 1965년 분류 골목의 폭 4~5m와 유사하다.

화신재가복지센터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던 분류 골목은 더샵리베르아파트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봉덕2동행정복지센터 뒤편을 통과하여 북동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분류 골목은 더샵리베르2차아파트에 의해 모두 사라졌다. 골목이 다시 나타나는 곳은 아파트 북쪽 정문 쪽이다. 이곳에서부터 북동쪽으로 140m 정도 떨어진 대봉치안센터(명륜로 152)까지의 대봉로 47길과 명륜로가 분류 골목의 잔재이다(그림 15 참조). 이 구간에 남아 있는 분류 골목 폭은 3m 정도이다. 골목 주변의 토지이용은 대부분 주거지로 이용되며, 주택들은 오랜 것들이 많다. 대봉치안센터는 그림 1의 ㉦와 그림 2의 ㉦ 지점과 비슷한 위치이다. 그리고 이 지역, 특히 더샵리베르아파트 북쪽 정문에서 대봉치안센터 140m 구간에는 폭 1.2m 정도의 오래된 콘크리트 하수구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하수구 연결 방향은 과거 이 지역으로 흘렀던 대구천 분류 방향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재 남아 있는 분류 골목의 주요 위치들은 1943년 분류 하천과 1965년 분류 골목의 그것들과 같고, 골목 형태, 방향, 폭은 1943년 분류 하천과 1965년의 분류 골목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이는 이 구간의 골목은 1943년 분류 유로가 변한 1965년 분류 골목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봉치안센터 건너편에 있는 분류 골목은 재개발로 모두 사라졌다. 여기서 북동쪽의 구 대구상업고등학교자리였던 센트로팰리스아파트와 대구사범학교 위치였던 경북대사범대부설중고등학교에서도 분류 골목은 나타나지



그림 14. 그림 13의 ①-②의 분류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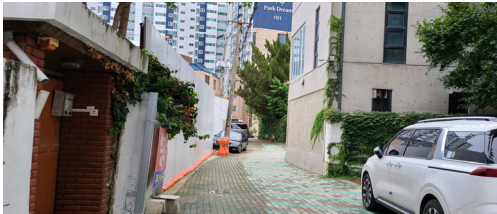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3의 더샵리베테르아파트-③의 분류 골목



그림 16. 그림 13의 의미심장내과 건물(④) 뒤쪽의 분류 골목

않는다. 분류 골목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곳은 경북대 사범대부설중고등학교 앞의 달구벌대로 건너편의 의미 심장내과(달구벌대로 2163) 부근이다. 이곳은 1965년 분류 골목을 나타낸 그림 2의 ㉔와 같은 지역이다. 의미심장내과 건물과 그 뒤쪽의 대구빌리브프리미어아파트(2023년 8월 완공 예정) 공사장 사이에 있는 골목이 분류 골목(그림 16 참조)이다.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골목 길이는 60여 m이고, 폭은 3m 정도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이어졌던 분류 골목은 공평로에 포함되어 모두 사라졌다.

IV. 대구천 골목 분포의 발생 맥락

대구천이 골목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첫째, 대구천을 따라 가옥이 들어서면서 하천과 집들이 오랜 시간 공존했으며, 둘째, 대구천은 골목 정도의 규모로 마을 속을 흘렀고, 셋째, 대구천으로 흐를 때나, 골목으로 바뀌었을 때나 마을의 공간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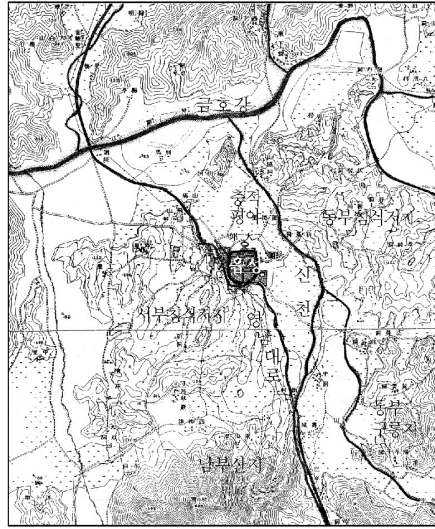


그림 17. 1895년에서 1904년 사이 제작된 대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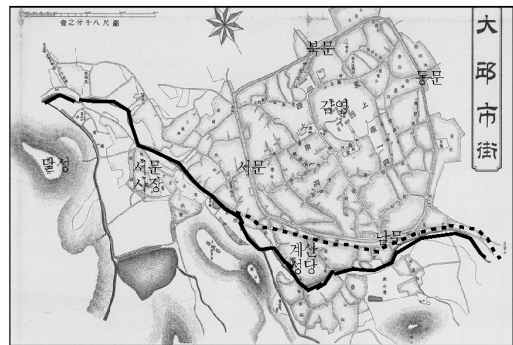


그림 18. 1903년 대구 시가지도

* 점선: 영남대로, 실선: 대구천
출처 :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다. 이는 대구천을 따라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으며, 그 곳이 어떤 원인으로 오랫동안 개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대구천 골목의 지역적 분포 차이의 발생 맥락을 살펴본다. 대구 원도심의 출발인 대구 읍성 축성은 대구천과 관련 깊다. 이를 그림 17, 18에서 알 수 있다.

대구 원지형과 읍성이 잘 드러난 1895년에서 1904년 사이에 제작된 대구 지도(그림 17)와 읍성이 파괴되기 4년 전인 1903년 대구시가지도(그림 18)를 보면, 대구 읍성은 서부침식저지에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읍성 서쪽과 남쪽의 축적평야 폭은 아주 좁다. 반면 읍성 북쪽과 동쪽에는 축적 평야가 넓게 발달해 있다. 그림에도

대구 읍성은 좁은 충적평야 상에 입지하였다. 이는 임란 이후 축성된 대구 읍성의 입지 조건과 관련 있다. 즉 송언근(2020)이 밝혔듯이 대구읍성은 이인좌의 난 이후 경상도의 중심인 대구의 안정화와 산성에서 평지성으로 방어 개념이 변화하는 시기에 축성되었다. 시대적 배경으로 대구 읍성은 주요 교통로에 입지하는 평지성의 특성에 따라 대구천을 따라 발달한 영남대로에 인접하였다. 그리고 평지성의 약점인 방어 기능 강화를 위해 대구천을 자연적 해자로 이용하였다. 이 같은 입지 특성으로 읍성 남문과 서문은 대구천과 영남대로에 연하여 위치하였다. 읍성 밖 마을도 대구천과 영남대로를 따라 발달하였다. 이처럼 대구천은 대구읍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대구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우리나라 전통 취락의 가로 구조로 인해 그림 18에서 보듯이 읍성 내부와 외부의 길들은 미로형이다. 때문에 길과 길 사이의 취락도 불규칙적인 크기와 형태로 발달한다. 이 같은 대구 시가지 모습이 1910년 이후에는 달라진다. 그것을 1911년 대구 시가약도(그림 19)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7과 18에서 보았듯이 읍성 북쪽과 동쪽은 넓은 충적평야에도 불구하고 읍성 남쪽과 서쪽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적게 살았다. 이러하였던 읍성의 동쪽과 북쪽이 1911년에는 바둑판처럼 직교형의 간선도로들이 발달하고, 집들도 반듯하게 구획된 부지 속에 들어섰다(그림 19 참조). 이로 인해 대구는 읍성 남쪽

과 서쪽의 전통적 가로 구조 지역과 읍성 동쪽과 북쪽의 근대적 가로 구조 지역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의 조선 침략과 관련 깊다.

1903년 가을, 러일전쟁을 앞두고 지지부진하던 경부선 철도 건설에 속성 명령이 하달되면서 철도 공사는 활기를 띠게 된다. 이때부터 대구에 일본인들이 대거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거주하였던 곳은 전통적으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던 읍성 남쪽과 서쪽을 벗어나 읍성 북쪽과 동쪽이었다(손정목, 1996; 김일수, 2003; 김주아·김영, 2011). 1907년 대구읍성이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면서 대구는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을 위한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한국인 거주지였던 읍성 남쪽과 서쪽은 읍성 동쪽과 북쪽의 일본인 거주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1911년 지도(그림 19)와 1924년 대구 교통지도(그림 20)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0의 1924년 대구교통지도에서 보듯이 동성로 1길과 대봉로를 기준으로 시가지 가로 구조는 확연히 다르다. 즉 동성로 1길과 대봉로를 기준으로 그 북동쪽과 동쪽은 계획적 도시개발로 직교형의 가로들이 바둑판처럼 발달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인들이 주로 살았던 동성로 1길의 남쪽과 대봉로 서쪽은 자연발생적 시가지 모습이고 가로 구조는 미로형이다. 가로 구조의 지역적 차이는 1923년 12월 20일 동아일보에도 나타난다(김주아·김영, 2011).



그림 19. 1911년 대구 시가약도

* 점선: 영남대로.

출처 : <https://blog.naver.com/quixcha/222274675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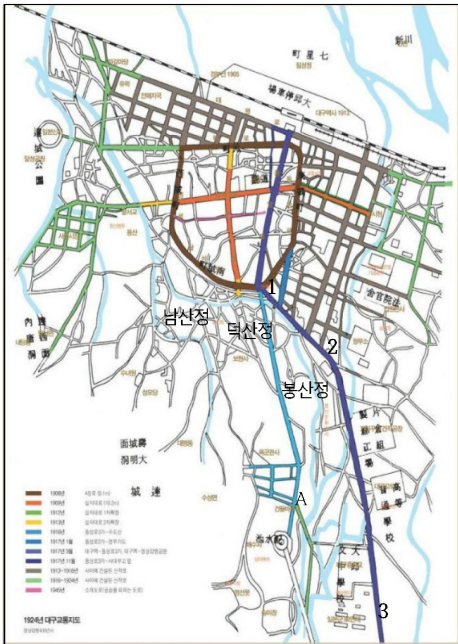


그림 20. 1924년 대구교통도

* A: 건들바위, 1-2: 동성로 1길, 2-3: 대봉로.
출처 : 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대구에서 조선 사람이 많이 사는 거리라 하면 남산정을 비롯하여 명치정 덕산정 봉산정 신정, 달성정과 시장정이다. 이 모든 거리에 각종 시설을 보면 짐차 하나가 완전하게 지나갈만한 도로가 없다.

전술한 문제는 1935년 3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되었다.

수천호가 준비하게 모여 있는 남산정에는 도로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만일 화재의 불행이 있을 때는 소방자동차의 내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한심한 시기를 가진 대구부에서 다액의 돈을 들여 운동장이나 아스팔트니 하는 것은 실로 기형적 시설의 모순이라 격론하고 전기 두 가지 예산에는 절대 반대를 표명하였다.

기사에서 보듯이 1923년에 짐차 하나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비좁은 가로만 있던 한국인 거주 지역의 문제점은 1935년에도 여전하였다. 당시 한국인 주거지역의 가로구조가 얼마나 복잡하였는지는 일본 지리학자 木内信藏의 저서 '도시지리학'에서 알 수 있다. 그는 불규칙적



그림 21. 1937년 대구지도

* 실선: 대구천, 점선: 구읍성, 파선: 동성로 1길, 2점 쇄선: 대봉로, ①: 동아백화점, ②: 계산오거리, ③: 달서교, ④: 봉산육거리, ⑤: 삼덕성당 주변 네거리.

인 가로 구조를 가진 도시의 대표적인 예로 대구를 들었다. 대구의 전통적 가로 구조는 세계적 예시가 될 만한 미로 구조라는 뜻이다(홍경희, 1966). 이는 달리 말하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마을의 공간 구조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뜻이다. 그 곳이 조선 사람들의 주거주지인 명치정, 남산정, 덕산정, 봉산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으로 흐르는 대구천도 과거의 형태를 간직한 채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도시 계획에 의한 직교형 가로 건설은 전통적 가로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대구천 존재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그림 21의 1937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1에서 ①은 현재 동아백화점 위치이고, ②는 계산오거리이며, ③은 오토바이 골목 입구 부근이다. 과거 대구천은 ①과 ②, 그리고 ③의 달서교를 지나 달성 방향으로 흘렀다. 그런데 이 구간의 달서교(③)와 계산오거리(②) 사이에 직선의 넓은 도로가 건설되었고, 그것은 다시 ②에서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덕산정을 지나 곧고, 넓게 뻗어있다. 이로 인해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앞으로 흐르던 대구천은 복개되어 도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또한 ④는 현재의 봉산육거리 부근이고, ⑤는 삼덕성당 북쪽 네거리이다. 도시 개발 이전 대구천 분류는 ④에서 ⑤쪽으로 흘렀다. 그런데 이곳을 따라 직선의 간선도로가 생겼다. 이로 인해 이곳으로 흐르던 대구천 분류 역시 복개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대구천의 존재

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그림 2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읍성 동쪽, 즉 동성로 1길 북동쪽과 대봉로 동쪽에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과 공장들이 즐비하다. 일본인 주거지였던 읍성 동쪽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오늘날 시청 위치인 부청, 경북대학교 병원과 의과대학의 전신인 도립병원과 의학전문학교, 세무서, 고등여학교, 법원, 지사와 법원 관사, 대구형무소, 대구사범학교, 대구상업학교, 경북중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편창제사장과 같은 섬유 공장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공공시설 개발은 그것에 인접해 흐르는 대구천 분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상업학교와 사범학교, 그리고 대구형무소 앞을 흐르던 대구천 분류가 복개되어 사라진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1937년 지도에는 덕산정, 봉산정, 그리고 현재의 제일중학교 위치인 월견산 지역에는 대구천 분류 유로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한국인들의 주 거주지역인 이곳은 간선도로 건설과 세로 개선 등 근대적 도시 개발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도시 개발 배제는 1922년에 계획하여 1927년에 확정된 대구도시계획에서 알 수 있다. 1922년 계획 당시 대구도시계획의 핵심은 대구 역사(驛舍)를 북쪽으로 이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선인 시가지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구 일본인거류민단은 역사 이전과 조선인 시가지 정비를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대구부는 조선인 시가지 도로 및 하수도 설치안을 폐기하고 일본인 시가지

조성을 우선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1927년 5월에 가결하였다(이기조, 2005; 최석주, 2005). 도시 계획에 조선인 지역의 배제와 이에 따른 문제는 1927년 도시 계획에 이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도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 본 1935년 3월 30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듯이 당시 조선인 지역은 변변한 도로 하나 없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가로 구조였다. 이 같은 문제로 간선도로는 고사하고 세로와 같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길의 개선에도 문제가 많았다. 이것이 조선인 주거지역으로 흘러들던 대구천, 특히 분류가 일제 강점기 동안 존재하였던 이유로 보인다.

도시개발이 대구천 존재에 미친 영향은 해방 이후에도 나타난다. 이를 그림 22의 1954년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54년의 명덕초등과 경북여고 남쪽 지역은 대부분 논밭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특징을 건들바위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건들바위 주변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으며, 시가지화 되지 않은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들바위 주변에는 대구천 잔재가 당시까지 남아있었다. 이를 신문 기사와 주민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1999년 10월 11일자 영남일보에는 '건들바위 근처 주민 조**(여, 55)는 어릴 적 이 일대가 넓은 연밭이었으며, 경치가 아름다웠다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있다. 인터뷰자의 나이로 보면 1960년대 초반까지 건들바위 일대에 대구천 유로 잔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2. 1954년 항공사진

* A: 건들바위, B: 봉산새마을금고, 흰색실선: 대구천 본류 골목, 흰색 점선: 대구천 분류 골목.

2001년 10월 25일자 영남일보에 '30여년전만해도 수도산 동쪽에서부터 건들바위 일대까지 배나무 숲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미나리짬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다. 이 역시 1960년대 초중반까지 건들바위 주변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최**(70세)는 '봉산새마을금고 주변에는 2~3m 정도 되는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꾸라지도 잡았다.'라고 하였다. 이들로 볼 때 해방 이후 1960년대 초중반까지 건들바위 주변에는 국지적이지만 대구천 잔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까지 도시개발의 차이로 대구천의 지속 기간은 지역적으로 달랐다. 도시개발의 지역적 차이는 대구천이 변한 골목의 존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 알 수 있는 곳이 건들바위에서 대구초등 사이, 그리고 원도심 주변이다. 건들바위에서 대구초등 사이에는 1943년 대구천이 그것의 위치, 형태, 길이 방향, 폭 등을 유지한 채 1965년의 대구천 골목으로 변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대구천 골목 좌우는 대부분 오래된 단독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뜻이다. 이것이 이 지역에 대구천 골목이 가장 많이, 가장 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이유이다. 반면 대구의 중심지인 원도심에는 현재의 달구벌대로인 대구의 동서 도로의 확장으로 신성미소시티아파트 앞의 대구천 골목이 사라졌고, 현대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은 대구천 골목을 수용하여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YMCA 등 크고 작은 건물들이 대구천 골목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원도심 지역의 대구천 골목은 대부분 사라졌다.

V. 요약 및 결론

대구천 골목 분포의 특징과 발생 맥락을 밝히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80년 전인 1943년만 하여도 대구 시내에는 대구천이 흘렀다. 당시의 대구천은 3~5m 폭을 가진 작은 개천 정도이었다. 이 같은 대구천이 1965년에는 1943년 당시의 유로 형태, 길이, 방향, 폭 등을 유지한 채 골목으로 변하였다.

2022년 현재 남아 있는 대구천 분류 골목은 건들바위 버스정류장 서쪽의 이천로와 제일중학교 동쪽의 명륜로, 그리고 봉산문화거리 동쪽의 봉산문화1길과 2길을 따라 덩커피로스트까지 700m 정도이다. 반면 대구초등 북쪽에서 계산오거리 사이, 즉 과거 대구읍성이 있었던 원도심 쪽의 대구천 분류 골목은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자야에서 타르타르 사이 약 120m이다.

대구천 분류 골목은 건들바위 맞은편 대봉화성파크드림아파트 북쪽 경계 부근의 고운선한복과 화산재가복지센터 사이의 대봉로 43길과 이천로, 그리고 더샵리베르 2차 아파트 북쪽에서 북동쪽의 대봉치안센터까지의 대봉로 47길과 명륜로이다. 이 구간의 분류 골목 길이는 약 280m 정도이다. 그리고 봉산오거리 부근의 의미심장내과와 대구빌리브프리미어아파트 사이의 60m 거리에 분류 골목이 남아 있다.

대구천 골목 분포의 지역적 차이는 일제강점기와 현재의 도시개발과 관련 깊다. 1904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구로 진출한 일본인들의 주 거주지는 읍성 동쪽이었다. 이 지역, 특히 읍성 동쪽 성벽 자리인 동성로, 동성로 1길, 대봉로를 이은 선의 동쪽은 일본인을 위한, 일본인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가로 구조는 바둑판처럼 격자형으로 발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읍성 동쪽에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공공시설들이 입지하였다. 이 같은 도시개발로 대구천 분류, 특히 대봉로 동쪽의 분류 하천은 1930년대 후반에 대부분 사라졌다. 이와 달리 대구천 분류가 흘렀던 읍성 남쪽, 즉 읍성 남쪽 성벽 자리였던 남성로와 동성로 1길 남쪽과 대봉로 서쪽은 한국인들의 주 거주지였다. 때문에 이곳은 의도적으로 근대적 도시 개발에서 소외되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으로 흐르는 대구천 분류를 유지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후 도시화로 물이 흐르는 유로 폭은 줄어들었지만 유로 형태는 유지한 채 골목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특히 건들바위에서 대구초등 사이는 오늘날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것이 대구천 골목이 이 지역에 가장 길고,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이유이다.

박충환(2016)은 도심문화유산관광을 원도심과 그 주변 일대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골목 곳곳에 산재하는 근대적 시간의 흔적들을 탐방하고, 감상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원도심과 그 주변의 대구천 골목은 조선 중기에서 일제강점기, 그

리고 해방 이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대구의 공간 구조와 그 속에 살아간 대구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없이 중요한 역사지리적 장소이다.

하천을 따라 길이 생기고, 그곳을 따라 사람, 재화, 정보가 이동한다면 골목은 그와 관련된 삶이 마주치는 역동적인 공간이자 삶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구천과 그것이 변한 골목에는 대구민들이 만든 역사와 지리, 그리고 사회문화적 흔적이 깊고, 넓게 퇴적되어 있다. 이를테면 대구천 골목은 수백 년 동안 대구민들의 삶의 기억이 담긴 장소이다.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구의 중요한 역사적·지리적 흔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함에도 대구천 골목은 도로 확장과 재개발로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천 골목을 대구의 중요한 역사적·지리적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구성된 본 연구는 대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장소인 대구천 골목을 대상으로 그것의 분포 특징과 발생 맥락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구천 골목의 발달 과정, 그리고 그곳의 장소적 의미와 답사 코스 개발은 차후 과제로 돌린다.

註

- 1) 원도심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도심지 역할을 한 지역. 다른 도심지가 생겨나기 전에 형성된, 도시의 오래된 중심 부분으로 되어 있다(네이버 사전). 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대구 원도심은 대구시구개정이 이루어진 1920년 이전의 대구 시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의 원도심은 대구 읍성을 중심으로 서쪽은 달성, 남쪽은 아미산, 동쪽은 삼덕동, 북쪽은 태평로까지이다.
- 2) 오토바이 골목의 경우 과거에는 대구천이 흘렀던 곳이지만, 대구천이 사라진 지금은 대구천 지류였던 남산천이 복개된 도로 밑으로 흐른다.
- 3) 대구천은 신천의 중동교와 희망교 사이에서 분류하여 대구부 서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유입하였던 하천으로, 선상지에 흐르는 하천의 특징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흘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천을 흐름 형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신천에서 분류하여 대구부 서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유입한 하천으로 이를 ‘대구천 본류’라 한다. 그리고 건들바위 부근에서 대구천에서 갈라져 경북대사범대부설중고등학교등, 대구시청, 대구역 부근의 구 향교 동편을 지나 금호강으로 흘러간 하천은 ‘대구천 분류’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대구천 본류로 유입하는 하천을 ‘대구천 지류’라 부른다. 이들 세 유형의 대구천을 편의상 ‘본류, 분류, 지류’라고 기술한다.

- 4) 과거 대구부의 동쪽에는 신천이, 서쪽에는 대구천이 흘렀다. 그림 1은 연구 지역에 국한하여 대구부로 흘렀던 대구천 유로만 나타내었다. 대구부로 흘렀던 신천과 대구천 하계망 특징은 “송언근·강경택(2017), 1910년대 신천 좌안 충적평야의 하계망 특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5) 현재 경북대사범대부설 중고등학교에 있었던 대구 사범학교는 1923년 경북사범학교로 설립하였다가 1929년에 대구사범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상원고등학교인 대구상업학교는 1923년 대구 공립상업학교로 개교하였다가 1951년 대구상업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위키백과).
- 6) 1908년 문을 연 ‘대구 감옥’은 1910년에 대구 중구 삼덕동 2가로 이전했으며, 1923년에는 대구형무소로 개칭되었다가 1961년 대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구교도소는 1971년부터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있다(위키백과).

참고문헌

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대구신택리지」, 서울: 북랜드.

김일수, 2003, “일제강점 전후 대구의 도시화과정과 그 성격” 역사문제연구, 10, 83-121.

김주아·김영, 2011, “대구시 도심부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9(2), 59-71.

박찬석·이병근, 1985, “대구 도시계획 소고” 지리학논구, 10, 129-140.

박충환, 2016, “대구근대골목투어: ‘지붕 없는 박물관’과 스토리텔링의 정치적 지형”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141-178.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송언근, 2020, “신천 유로 변화와 대구 읍성 입지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320-335.
송언근·강경택, 2017, “1910년대 신천 좌안 축적평야의 하계
망 특징: 건물바위에서 상동교 사이를 중심으로”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23(3), 568-585.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도판편)」, 서울:
금운한편집.
이기조, 2005, “일제하 대구부 시가지 형성 과정에 관한 연
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석주, 2005, “일제강점기 대구의 도시계획” 지리학논구,
24, 68-89.
홍경희, 1966, 「대구시: 도시지리학적연구」, 대구: 문화출판사.
동아일보, 1935년 3월 30일자, “대구부도로정책통격 조선인
촌은 약취가 코를 찔러 부회에서 격론수시간”
영남일보, 1999년 10월 11일자, “서거정의 대구 10경”
영남일보, 2001년 10월 25일자, “이천동 → 배나무, 마을 상
징 숲 가꾼다”
MY Identity, <https://blog.naver.com/quixcha/222274675588>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

교신 : 송언근, 42411,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19(대명동),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unsong@dnue.ac.kr)

Correspondence : Un Gun Song, 42411, 219 Jungang-
daero, Nam-gu, Daegu,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unsong@dnue.ac.kr)

투고접수일: 2022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28일